

서울은 청약불패?... 분양가 부담에 '줍줍 물량' 14가구 등장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 93대1 84㎡ 분양가 최고 13억5180만원 86% 계약포기, 14가구 무순위청약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강동구 아파트에서 무더기 계약포기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소위 '줍줍' 물량이다. 후분양 단지로 자금일정이 빠듯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변 아파트 대비 매력 없는 분양가였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짓고 있는 '더샵 둔촌포레' 1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둔촌포레는 기존 현대 1차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다. 지하 2층, 지상 14층, 8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전체 총 572세대로 리모델링 전보다 74가구가 늘었다. 9호선이 지나가는 중앙보훈병원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더샵 둔촌포레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지난달 최초 청약 당시는 흥행에 성공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37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다.

무난히 완판될 것이라 예상과 달리 당첨자 74명과 예비당첨자 370명 등 총 444명 가운데 60명만 실제 계약에 나섰다.

86%는 계약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14가구가 이번 무순위 청약분으로 나왔다.

지금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높은 분양가가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포레의 전용 84㎡의 분양가는 층

별로 다르지만 12억9300만원에서 13억 5180만원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둔촌푸르지오의 경우 같은 전용 84㎡(21층)가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됐다. 올 들어 소폭 오른 가격으로 작년에는 11억원 선에서 실거래 신고가 많았다. 둔촌포레가 신축임을 감안해도 싸다고 보긴 어려운 분양가다.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변에 대규모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국내 최대 규모로 좁히는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무려 85개동에 1만2032세대가 들어온다. 당분간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주변 시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 84㎡의 분양가는 둔촌포레와 같은 13억원 선이다. 입주권은 분양가보다 6억~7억원 웃돈이 붙어 지난달에만 최저 19억원에서 최고 20억원에 거래가 됐다.

둔촌포레는 지난달 말 기준 건축공정률이 74.7%로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후분양아파트다. 오는 9월 초까지 분양가의 40%를 모두 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후분양인 만큼 건축 공정상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시 아파트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금액의 각 10%를 납부해야 한다. 7층 기준으로 분양가의 10% 1억 3357만원에 옵션 비용 10%인 289만원을 더해 1억3646만원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모두 전용 84㎡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여부는 상관없다. 거주무 기간이 없고, 해당제한도 없지만 앞으로 1년간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韓日, 공급망 안정화 협력... 도레이, 국내 1.2억 弗 투자

6년만에 산업통상장관회담

경제인회·재계회 등 협력 촉진 2050 탄소중립 목표 협력 확대

도레이, 내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 생산

한일 양국이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을 갖고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글로벌 화학기업 도레이사는 국내에 첨단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1억2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트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정상간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첫 정석회담이다.

양측은 우선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업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일 경제인회와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경제산업성 접견실에서 사이트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도 추진키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

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밖에 한일중 3국 간 협의되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해 상반기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의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

심 소재기업 A사가 1억2000만달러 규모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이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도레이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 시설이 2025년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 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일본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TEL)을 방문 가와이 도시키 최고 경영자와 회담했다. 이어 '일본시장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진출한 SK하이닉스, 대한항공,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수업 거부 의대생들'서 계속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메이저 의대 입시, 더욱 치열해질 것”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이미 의대 합격 경험이 있는 우수 지원자들이 메이저 의대 입시로 유입되면서, G3 학생으로서의 졸업생 지원이 제한되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을 선호하게 돼 해당 전형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며 “더욱 우수한 지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메이저 의대 입시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기존 2023명에서 1639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만큼 합격선이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합격 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증원 규모가 제한되는 일반학생 전형은 지원자 유입이 증원 규모를 상쇄해 합격선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증원 규모가 더욱 크고 지원자 내신 산포도 또한 일반학생 전형에서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편입학 여석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측된다. 서울권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의학학 계열 편입 선발 추이는 150여명에서 올해 350여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라며 “의대 증원에 따라 약대·의대생들이 보다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중도 탈락이 대거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방권 의대 편입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ihj@

“메타, 사칭광고에 구글처럼 강력 조치를”

>> 1면 '석달새 1200억 피해'서 계속

또 AI(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칭 관련 정보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명인 동의' 전제로 얼굴정보를 수집해 사칭광고 방지 기술을 시험 중이다.

메타도 최근 한국 뉴스를 통해 “2023년 4분기에만 사칭 광고 계정을

포함해 총 6억9100만개의 가짜 계정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다”며 “이들 중 99.2%는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을 학습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사모 측은 “회견은 사실상 사칭 광고의 온상 격인 메타 플랫폼의 소극적·미온적인 태도가 촉발했던 것”이라며 “사칭 광고 시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처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계도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칭 광고를 선별하는 데 애매한 부

분이 있고,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 여기에 불법 광고사들은 플랫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회 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은 “사기범죄는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는 해외 IP를 통해 만든 계정일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통해 범행이 이뤄져 실명을 알기 어렵다”며 “애초에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